

# 중국서 '박해진 우표' 출시

### 문화분야 영향력 있는 인물 선정 ... 한국인 최초 정식 발행

한류스타 박해진(사진)의 사진을 활용한 '박해진 우표'가 5월초 중국 전역에 출시된다. 또 '박해진 전화카드'와 기념주화, 엽서도 출시된다. 한국배우 최초다.

이벤트형 행사가 아닌 정식 우표 발행이라는 점에서 중국에서 출시되는 한국인 최초의 우표다.

18일 박해진의 소속사 마운틴브라운에 따르면 '박해진 우표'는 한정판으로 제작된 100세트에 이어 향후 중국 전역서 상시 통용되는 일반 우표로 출시된다.

또 '박해진 전화카드'도 나온다. 이미 심의를 통과했고 5월초 출시될 예정이다. 박해진 우표와 전화카드, 기념주화가 포함된 우표집 한정판은 698위안(한화 약 12만3천490원)으로 5월초 예약판매를 시작한다.

이어 8월에는 15위안, 30위안짜리 전화카드가 나오고, 중국 전역 우정국에서 언제나 구매할 수 있는 80전(약 140원)짜리 우표가 발매된다.

박해진의 얼굴이 새겨진 은빛 기념 주화도 나온다. 이는 중국 우편 배달국 사이트와 국가우정국 전신부서 등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원풍중국(중국의 꿈을 이루다)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다.

문화분야 종사자 중 최고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을 선정해 그들의 사진을 활용한 우표와 전화카드를 만든다.

박해진은 견자단, 담요문 등 중국 '국민 배우' '국

민 가수'에 이어 5번째로 모델로 선정됐다. 박해진은 한류스타이지만, 중국에서의 활동을 인정받은 것이다.

중국에서 한국인을 모델로 한 우표가 발행된 것은 2008년 K팝스타인 슈퍼주니어-M(슈퍼주니어의 중국어권 유닛)의 우표가 처음이다. 이 우표는 당시 발생한 원천(汶川) 대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자선우표로, 일회성으로 특별 발행됐다.

이번 박해진 우표는 상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 우표로 발행되고, 중국 문화계 대표인물 100명을 선정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훨씬 크다는 게 중국 연예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박해진은 2011년 중국 후난위성 TV에서 방송돼 큰 인기를 끈 중국 드라마 '첸더더의 결혼이야기'를 통해 한류스타로 떠올랐으며, 이후 '또 다른 찬란한 인생', '연애상대론', '멀리 떨어진 사랑' 등 잇달아 중국 드라마에 출연하며 '중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한국배우'라는 인식을 심어줬다.

그는 또 한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와 '닥터 이상인', '나쁜 녀석들'로도 중국에 상륙했고, 최근에는 '치즈 인 더 트랩'이 중국에 정식으로 유통되기도 전에 박해진의 이름값으로 웨이보에서 엄청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박해진은 그동안 중국에서 각종 기부를 이어갔으며, 중국에 진출한 롯데시네마는 2013년 2월 텐진(天津)을 시작으로, 선양(瀋陽), 산둥성 웨이하이(威海)와 쑤저우(蘇州) 지역 롯데시네마에 '박해진 관'을 개관하고 해당 관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전체를 기부해왔다. /연합뉴스



## “작년 지하철 사고 투신 맞다”

### ‘한국영화 100년 사진전’ 참석한 배창호 감독 심경고백

### “작품 부담감에 수면장애 ... 팬들의 응원에 용기 얻어”

배창호(63·사진) 감독이 지난해 6월 지하철 승강장 사고의 경위와 심경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배 감독은 18일 서울광장에서 한국영상자료원이 주최한 '한국영화 100년 사진전'에 참석해 연합뉴스에 "당시 지하철 선로에 추락한 것이 아니라 투신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투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눈을 떠보니 열차 바퀴 밑이었다"고 설명했다.

배 감독은 지난해 6월1일 새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터역 승강장에서 추락, 선로 가운데에 쓰러진 상태에서 전동차가 몸위로 지나가는 사고를 당했지만 다행히 가벼운 부상에 그쳤다. 당시 CCTV를 통해 승강장에 홀로 있다가 선로로 뛰어내리는 장면이 확인돼 투신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배 감독은 "2007년부터 예수의 일대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써왔다"면서 "지난해 2월 시나리오 집필을 마무리하고 3개월 동안 작품에 대한 부담감에 수면 장애가 심했다"고 털어놓았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배 감독은 "내가 과연 영화를 만들 자격과 믿음이 있는지에 대한 압박과 혼란이 극심했다"고 덧붙였다.

영화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묻자

배 감독은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며 "사고 이후 많은 영화 팬들의 성원과 관심에 큰 용기를 얻었다"고 밝혔다.

어렸을 때부터 영화인의 삶을 꿈꿨던 배 감독은 1980년대 충무로 황금기를 이끈 감독이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종합사사의 아프리카 주재원으로 일하던 중 1980년 이장호 감독의 '별들의 고향' 조감독으로 충무로에 첫발을 디뎠다. 이후 '꼬방동네 사람들'로 데뷔한 배 감독은 '고래사냥', '깊고 푸른 밤', '기쁜 우리 젊은 날', '황진이' 등 1980년대를 대표할 만한 영화를 다수 만들었다.

배 감독은 1982년 대중상 신인감독상과 백상예술대상 신인감독상, 1983년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감독상, 1985년 대중상 감독상, 1987년 황금촬영상 감독상 등을 휩쓸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영화산업 전반이 충무로 제작사 중심에서 대기업 계열 투자 배급사와 멀티플렉스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원로 감독들이 대부분 운신의 폭이 크게 좁아졌다.

한편, 이날 행사 개막식에는 배 감독 외에도 정관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김세훈 영화진흥위원장, 이경숙 영상물등급위원회장, 임권택 감독, 배우 신성일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 부산영화제 레드카펫 텅 비나

### 범 영화인 비대위 설문조사 회원 90% “보이콧 찬성”

'부산국제영화제 지키기 범 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 영화인 비대위)는 올해 부산영화제 참가를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범 영화인 비대위는 "지난 1일부터 일주일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전화 설문을 통해 단체별 회원들에게 부산영화제 보이콧 찬반 여부

를 묻는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면서 "단체별 회원 과반이 응답했고, 응답자 가운데 90% 이상이 보이콧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영화계가 이렇게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2006년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이후 10년 만이라고 범 영화인 비대위는 덧붙였다.

범 영화인 비대위는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

국영화감독조합,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여성영화인모임, 영화마케팅사협회 등 9개 단체로 구성됐다.

앞서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11일 부산시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규 자문위원 위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자문위원 68명의 효력을 본안소송 때까지 정지했다.

지난달 25일 이윤관 부산국제영화제 당시 집행위원장은 영화제 정기총회를 앞두고 총회 의결권을 갖는 신규 자문위원 68명을 대거 위촉하며 부산시와 갈등을 빚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토크쇼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일도 승리)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끝판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9 00 신문이야기 들춰주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드 35	00 제56주년 4.19혁명기념식 40 코리아 지오그래픽+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40 이제 만나러 갑니다	00 KBS 명품역사관 (광개토대왕) 50 인생 우리말	00 버스(재)	00 앙코르 MBC 스페셜 (법상, 상식을 뒤집다 탄수화물의 경고 2부)	00 2016 한국인명방송대상 우수상 수상작 (방주의 신 신앙 2부)
12	00 KBS 뉴스 12	00 생생정보 스페셜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50 닥터 365(재) 55 토크 콘서트 화통(재)
1 뉴스특급	00 KBS네트워크특선 유치토크쇼 가요1번지 55 시청자클럽 우리사는 세상	00 1대100(재)	20 문화사색(재)	55 TV블로그 꿈지락
2 30 직언직설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	05 내꺼야 풀록 30 푸리가 식사교실	00 2016 한국인명방송대상 우수상 수상작 (러브 릴레이 100인의 기적)
3	00 이웃집 찰스(재) 55 튜튼생활채널	05 후토스 읽어버린 숲(재) 30 자동차부품상 위키	00 MBC 뉴스 10 퓌? 퓌! 키즈스쿨 55 아빠 어릴 적엔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다큐 공감(재)	00 TV우치원 30 아육정PD의 자연 담은 한끼(재) 40 동물의 세계	2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재)	00 2016 한국인명방송대상 우수상 수상작 (러브 릴레이 100인의 기적)
5 40 김승연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VJ특공대(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톡톡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365 1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7 2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7 30 시사현장 맥 55 집중 인터뷰 이사람	50 일일드라마 (천상의 약속)	15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마녀의 성)
8 20 먹거리 X파일(재)	25 우리집 풀단지	30 2TV 생생정보 플러스 55 1대100	5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스타! 킹
9 30 개밥주는 남자(재)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시사기획 창 55 숨터	00 월화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	00 월화특별기획 (문스타)	00 월화드라마 (대박)
11 00 천개의 비밀 에메이징 스토리(재)	00 KBS 뉴스라인 40 콘서트 필	10 우리동네 예능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 20 오늘부터 대학생(재)	30 한국인의 밥상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MBC 뉴스24 15 MBC 100분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EBSe 생활영어	10:30 최고의 요리비결 (웃고주 소고기 볶음과 물나물 물김치)	15:00 모피와 친구들 15:15 세기사 시간여행 15:30 세계테마기행 15:40 꼬마기사 마이크(재) 15:50 보로로와 노래해요 16:00 코코몽3 16:30 코코코 다크(재) 16:45 덩동덩 유치원1~3(재) 17:30 뽀롱뽀롱 보로로 17:45 로보카 폴리 18:00 생방송 토크! 보리하니1~4 19:00 레이디 버그(재) 19:30 EBS뉴스 19:50 극한직업 (중국 청버지 공)	20:40 다큐 오늘 (책 읽어주는 누타 할아버지) 20:50 세계테마기행 (불멸의 작가, 서익스피어의 탄생) 21:30 한국기행 (세상의 끝 고원을 가다) 21:50 EBS 다크프린 (중아시아 살아있는 야생기록 -5부 생령, 물에 깃들다) 22:45 리얼극장 행복 (코미디언 문영미와 언니) 23:35 시대공간 24:10 EBS 특별기획 통찰(洞察) (일파백파 문명)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19일(음 3월 13일 辛未)
子	48년생 평상심을 가지고 정성을 다 한다면 당면 과제에 순조롭게 진행되겠다. 60년생 이해관계가 복잡다단하여 혼란스럽겠다. 72년생 애방하는 것이 안전하다. 84년생 예리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98.05	42년생 오랜 인연으로부터 비롯되는 바가 깊고도 크다. 54년생 무의미한 정황의 반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뿐이다. 66년생 현대에 따라서 유용적으로 적용할 일이다. 78년생 늦은 시간애야 겨우 가닥이 잡혀졌다. 행운의 숫자 : 63.94
丑	49년생 의무를 다해야 할 처지로서 힘들겠다. 61년생 예측 불허의 변수가 작용하면서 진척을 가로막고 있는 편이다. 73년생 만사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법이다. 85년생 김조가 깃드는 판세이리라. 행운의 숫자 : 29.77	43년생 독전에서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도 있다. 55년생 생산성을 증폭시키는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다. 67년생 겉으로는 쉬워 보이지만 갈수록 곤혹스러워질 수도 있다. 79년생 협조를 구한다면 자칭하는 이가 생겼다. 행운의 숫자 : 78.95
寅	50년생 무작정 버티기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62년생 현재의 어려움을 견뎌낸다면 희망찬 미래를 연다. 74년생 날날이 살펴보고 대응할 일이다. 86년생 전환 시킬수 있는 역발상이 유용하다. 행운의 숫자 : 67.09	44년생 지금이야말로 끈기있게 보완하기에 지극히 적절한 시기이다. 56년생 바탕을 견고히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소다. 68년생 애초에 마음먹은 대로 추진하는 것이 유익하다. 80년생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0.89
卯	51년생 처음이어서 낯설고 어려워서 불편해 하는 정황이다. 63년생 규칙적이야만 효과를 본다. 75년생 국역에 따라서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87년생 치밀한 대처 없이는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41.49	45년생 미흡한 점이 보이거든 미루지 말고 손질하라. 57년생 유혹으로부터 오는 우환을 막아내야만 한다. 69년생 가지 않는 길을 살펴본다면 얻는 바가 있으리라. 81년생 확신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진행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83.90
辰	40년생 마음을 비우고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52년생 희망적인 동세이니 기회 기대해 볼만한 사국이니라. 64년생 전문적인 시선이 필요하다. 76년생 하등의 문제가 없다. 88년생 새롭게 해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50.93	46년생 근린 관계의 협조 체제가 절실하다. 58년생 준비해둔다면 결정적인 시기에 역발할 것이다. 70년생 부담스럽다면 단계에 상관없이 반복할 수도 있는 것이다. 82년생 애초에 마음먹은 대로 추진하는 것이 유익하다. 행운의 숫자 : 16.97
巳	41년생 조용한 호수에 파문을 던지는 이가 보인다. 53년생 원인 요소에 주목하라. 65년생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안개 앙상이다. 77년생 콩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89년생 심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76.24	47년생 순조로운 과정에서 소폭적인 이득수가 보인다. 59년생 세련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71년생 알뜰하다면 생활의 밑거름이 되어 줄 것이다. 83년생 조건이 성립되었을 때에는 다소의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수용하라. 행운의 숫자 : 73.09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경주일보 독자지원센터 ☎010-9790-8237